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농업 비즈니스 부활한다”

6월 23일자 일본의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사이’는 ‘일본 10년 후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사양산업으로 인식됐던 농업은 하이테크 제조업과 결합돼 다시 각광받을 것”이라고 했다. “유기농업 등 바이오기술과 IT 등이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에 적극 활용돼 전통 농업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같은 날짜의 한국경제신문이 전달 보도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농민과 농업계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이제 우리 농업은 끝났다”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10년 후 농업 비즈니스가 화려하게 부활한다니!’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희망이 끊어진 곳’이라 묘사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

다. 그러므로 우리 농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길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농업의 자연적인 여건은 결코 나쁘지 않으며,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의 자연적인 여건은 좋은 편이다. 지역마다 기후 풍토가 다르고, 농산물은 맛과 향기가 다르다. 기후도 나쁘지 않고, 농업용수도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농가별 영농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철저한 협동으로 ‘들판 단위’ 농사를 지으면, 극복할 수 있다. 벼농사는 들판단위 농사가 거의 일 반화되어 있다.

개별 농가의 영농규모가 작으면, 농가소득이 작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상대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면, 농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축산, 원예특작 등의 경우, 2ha 내외의 땅도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다. 판로가 불확실하고, 자금과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둘째, 우리 농업의 시장 여건은 너무 좋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도 시장여건이 나쁘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국민 5천만은 우리 농산물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 일본에는 4만불 소비자 1억3천만이 있다. 중국에는 씹씹이가 큰 중산층이 2억 명이나 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년에 수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사치품의 12% 소비하고 있으며, 2016년 경 25%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많은 소비자들은 ‘한류’를 동경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을 ‘고급품’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다.

셋째, 기술과 마케팅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최고급 농산물이나 보통 농산물이나 생산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명품은 가격이나 소득에서 ‘10배’나 차이가 난다. 최근 농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도매시장에서도 중국산 ‘후지’ 15kg이 75위안(9,750원)이지만, 일본산 ‘세계일’은 5kg에 380-400위안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1kg가격으로 비교하면 일본산은 중국산보다 약 15배나 비싼 것이다.

같은 시기 가락시장에서 ‘후지’ 중품 15kg은 3만928원으로 중국의 3배, 일본의 5분의 1이다. 대만에서는 일본산 사과가 우리 것보다 6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한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일본산보다 높게 만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생산자들이 ‘하나로’ 뭉치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유통구조도 바꿀 수 있다.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수급조정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고, 어떤 상대와도 우월한 입장에서 거래교섭을 할 수 있다.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 출하량을 조정하면 수입이 되기 직전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올릴 수 있고, 가공, 수출 등에 따른 부가 가치도 농가소득으로 할 수 있다.

대형할인마트와의 거래교섭에서도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



고, 때로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자제토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정책을 입안할 때도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집행할 때에도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다섯째,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제쳐둔’ 전문가도, 돈도 ‘충분히’ 있다.

농협에는 7만이 넘는 금융 및 경제사업 전문가가 있고(경제사업 임직원만 23,000명), 막대한 재산과 수많은 사업장이 있다.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신용사업에서만 매년 2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하면, 농민들이 판매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담보가 없다고 유능한 농민이 정책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막대한 순이익은 농민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진흥청과 기술센터에는 2,500명의 석사·박사가 있고, 대학과 연구원과 농업계 고등학교에도 수많은 전문가가 있다. 이들이 제 역할을 잘하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세계최고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농촌공사의 전국 시군지사와 본사에는 7천명 가까운 전문가가 있고, 유통공사의 지방과 해외지사, 본사에도 기천 명의 전문가가 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지역 개발 및 농업기반 정비,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현장 농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는 “1년에 16조원”의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예산이 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만 편성되고 집행된다면,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된다.”는 언론의 비난도,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도 없을 것이다.

여섯째, 농업과 농민은 21세기의 자산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선점하고 있다.

우리의 산과 내와 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도시생활에 찌든 어른과 아이들이 농촌에서 떡 감고 물고기 잡으며 놀 수 있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더 사랑하고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지역마다의 독특한 전통문화는 우리 농산물과 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한류문화를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자연조건과 시장여건과, 이렇게 많은 전문가와 예산을 가진 우리 농업, 신선도와 물류비, 국민의 사랑 등 압도적으로 유리한 점을 가진 우리 농업이 국내시장에서 밀린다면 어떤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보면, 정작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세계 최고의 농업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과 비전과 리더십이 아닐까?

